



요약

사설

희망과 기다림의 여인 마리아.

양성 여정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믿고, 말기고, 미소짓자

DON ANGEL FERNANDEZ ARTIME 총장
신부의 편지 - 천국으로 가는 길.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서거 400주년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성체성사.

받은 것에 감사하기 위하여

베아트리카, 우리의 작은 기적.

가족의 연대기

- 아르헨티나 -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
하는 10월 피정.

- 태국 - 도움이신 마리아 성모상의 가정 순례.

사설

P.1 희망과 기다림의 여인 마리아

사랑하는 ADMA 회원 여러분,

P.2

우리는 전례주년을 끝내고,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신비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대림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성을 취하시어, 우리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P.8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세상 일에 마음이 빼앗기거나 근심하며 낙심하지 말고 오직 천상의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별을 발견하기 위해 눈을 하늘로 향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 보다 누가 이 시기를 잘 살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년 전 삼종기도 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천사의 알림을 받았던 마리아처럼 대림시기를 체험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P.9

마리아는 기도와 경청, 식별을 지닌, 뛰어난 기다림의 여인이십니다.

P.10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면, 마리아는 희망의 여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은, 인간의 논리와 시간을 초월한 기다림이며, 어려움, 위험,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성령의 길이였기 때문입니다.

P.12

희망을 가지고, 동요하지 말고 걱정 없이,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첫 걸음을 내딛으시는 하느님을 기다리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것이 우리 ADMA 회원들이 이 대림절에



본받고자 하는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쓸모없고 수동적인 것이 되지 않으며, 결실을

맺는 충만한 사랑의 행위가 되게 합니다. “고요하고 미소짓는 얼굴로, 이웃을 향한 애덕의 행위가 넘치게 합니다.” 토리노의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 성당에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대축일에 돈 보스코께서는, 바르톨로메오 가렐리를 만났습니다. 가족정신과 사랑이 넘치는 시선으로 단순하게 “성모송”을 한번 바침으로써 모든 거리감을 없애고,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에 다시 한번 탄생하시게 했습니다.

아드마 프리마리아 회장, 레나토 발레라
아드마 프리마리아 영적활성자, 알렉산드로 구에바라

양성 여정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요한 13:1)

1. 지금 여기에서 사랑을 깨닫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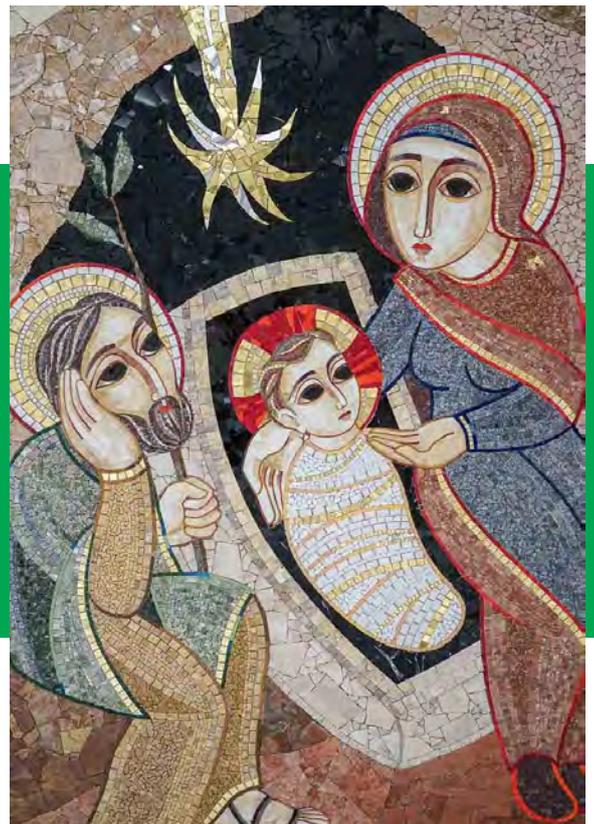
“당신을 괴롭히는 일상의 작은 모순들을 계속해서 극복하고 당신의 원의를 이것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지금은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이 작은 모순들을 극복하는 것 외에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므로 다른 것을 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정원에 당신의 욕망을 심지 말고 오직 당신 자신의 우물만을 가꾸십시오.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있는 곳에서 일상의 작은 모순들을 찾으십시오. 나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영적 생활의 큰 비밀이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의무와 우리 주님의 취향에 맞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에 살아야 한다면 스페인에 성을 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저의 오래된 교훈이며, 당신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Brulart 회장의 부인에게 보낸 편지, 1607년 6월)

여러분은 사랑하기에 선물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선물 그 자체를 사랑해서 그것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1607년에 쓴 편지에서, 그의 필로테아 중의 한 사람에게 보낸 질문을 이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네바의 거룩한 주교가 제기한 이 질문은 세기가

거듭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가와 우리 마음에 강하게 전달됩니다. 특히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이 대림시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예리한 말씀은 우리에게 성덕의 가장 깊은 비밀을 드러내주며, 우리의 길에 종종 숨어있는, 가장 자주 나타나는 교활한 유혹 중의 하나를 알아차리도록 도와줍니다. 사랑의 성인은 동시에 섬세하고 단호한 어조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심어지고, 우리의 자유로 지켜지는 거룩함의 씨앗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성숙할 수 있는 유일한 정원은, 지금 내가 있는 현재,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시간과 공간, 우리의 삶과 건강, 우리의 인간관계와 사랑, 우리의 일과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 우리의 소소한 것들과 여정 중에 있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고 놀랍게 보일 수 있는 현재, 항상 불안전하고 시간의 흐름에 의해 불안전한 현재, 우리 삶에서 위태롭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진실하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시간도 현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가장 참되고 진정한 부인 하느님의 현존은, 늘 우리가 볼 수 있게 분명하고 인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시면서 주인공으로 나서지도 않으시고, 신중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끈질기게 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머물며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심오하고도 소중한 우리의 재산입니다. 은혜의 시간만이 우리의 현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오늘 하느님의 방문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일도 그것을 오늘이라고 부를 것이기 때문에 내일 또한 인식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보아 성인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현재로부터 도피하려는 유혹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살지 않고, 일상생활의 단조로움과, 메마름에 굴복하여,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거룩함의 여정에 대한 또 다른 정원을 찾고자 하는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다양하고 다채로우며 다른 곳으로 탈출하는 목적지가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의 아름다움을 이상화하거나 후회하며 과거로 도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상상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를 동반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완전함이 없는 미래를 꿈꿉니다. 또 어떤 때는 피난처를 찾거나, 실제 또는 가상의 다른 현재로 도피하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주님을 따르는 여정에 훨씬 더 유리해 보이는 곳입니다. 제네바의 주교께서는 이러한 유혹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그러한 유혹에 직면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하고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공간은 현재임을 온화하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곳,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곳은 현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를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곳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아무 변화도 없는 차가운 얼음을 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주교께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깊고 소중한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현재가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을 결코 만나지 못할 것이며, 주님도 현재가 아니라면 결코 우리를 만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빛과 그림자, 모순을 가진, 명백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실 속의 아픔과 상처, 우리 삶과 역사의 정원에서, 스페인이 지닌 수많은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프랑스에서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고 있는 지금 현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베들레헴의 구유와 같이 오늘 지금 가장 가난한 곳에 오시므로, 겸손하게 당신을 맞이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머무르기를 바라시는 장소는, 우리가 거룩하게 걷고 성장하게 될 힘을 얻게 되는 곳, 우리 일상생활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 그곳에 손님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함은, 우리의 삶과 역사가 있는 지금 이곳을, 성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진보하고 성장하고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걸었을 때, 우리가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한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하느님께서,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심을 알아 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인내와 노력으로 얻은 결과로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우리에게 그 비밀을 밝히는 거룩함은, 실제로는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며, 훨씬 더 신성하고 인간적인 것입니다. 거룩함은 의지로 우리 자신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으며, 하느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은 현재를 사는 것,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빛 속에서 감사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삶을 주시기 위해 망설임이 없으신 하느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담아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우리 곁에 계시는 그분의 현존,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그분은, 마술처럼 우리를 다른 현재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그분의 빛과 기쁨과 선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에서 번성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듯이, 우리가 지금 여기 머물 용기가 있다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며, 죄를 단죄하지 않으시고 정화시켜주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비결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꽃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한한 사랑받아 왔기에 준비되었고, 제 조상들의 허물도 묻지 않으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가장 위대한 사랑에 의해 구원되고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와 자유를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자신이 꿈꾸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태초부터 꿈꾸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며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인, 현재의 마음 안에서만 체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2. ...하느님 자애의 현존...

요한복음(13,1-17):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겹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겹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피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불안한 속에서, 우리의 현재가 거룩함이 커져가는 부름받는 곳이 되게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지금 여기 우리 마음에 현존하시며 은총과 힘을 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당신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당신이 거하시는 곳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고 돌려드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의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여기 살게 함으로써 다른 곳으로 도피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벗어나도록 돕는 특별한 시기가 대림시기입니다.

대림시기는 해마다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성탄 신비를 준비하기 위해, 공동체 안에서 친교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초대하는 전례시기입니다. 대림시기는 역사상 가장 놀랍고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사실,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실 앞에서 우리의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다시 고백하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입니다. 한 고대철학자는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신이 지금까지 지상에 내려온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서 어떻게든 인간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셔서 인간으로 현존하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사가 요한은 이렇게 베들레헴의 예상치 못한 신비를 전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요한 1,14).



베들레헴 동굴에서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자유로운 사랑의 선택으로 우리 가까이 머물기 위해, 예언자나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사람이 되십니다. 성탄절에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며, 이것은 세상을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거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육화의 신비이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인간이 되신, 영원과 영원의 경계를 넘나드시는 하느님 사랑의 신비입니다. 이제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의 현재, 시간, 역사의 중심에 머무시게 됩니다. 성탄절에는 성부와 같은 본체이신 하느님의 아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기만 하면 언제나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이 인간이 되심으로**, 무에서 “또 다른 선물”을 재창조하지 않으시고, 모든 거리, 모든 고독, 모든 버림을 정복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현재를 새롭게 하고 재창조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육화의 신비를 통해, 인간의 사랑에 대한 영원함은 “유목민”이 되어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것을 받아들여시고 우리 시대에 그분의 천막을 치십니다. **임마누엘과 동행하시는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이, 하느님을 인간이 되게 이끄신 성탄절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 “우리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성탄과 부활의 신비 안에서,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 다르고 멀게만 보일 수 있는 사건들이, 같은 사랑의 논리로, 무한하고 측량할 길 없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살아 움직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특히 놀랍고도 무한한 깊이로 드러납니다. 그분의 끝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누추한 장소, 하느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사이에 머물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구원의 포용으로 세상을 향해 마음을 영원히 활짝 여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 이후 시간과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느님이 현존하지 않는 현재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직접 우리 손으로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위한 당신 사랑의 영원한 표지로 성체성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현재에도 영원히 현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체성사는 무엇보다도 큰 보물입니다.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의 발걸음을 위해, 그리스도 공동체에 삶의 근원, 심장을 뛰게 하는 맥박이 되도록, 하느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맡긴 것입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주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사랑의 선물이 과거의 기억으로 남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 실제 마음에 현존하게 하며, 우리의**



삶이 되게 합니다. 우리 시대의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쪼개지는 성찬례의 “일용할 양식”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는,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 사랑의 살아 있는 원천이 되며, 우리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 그 원천을 길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체성사는 하느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잃지 않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희생, 같은 십자가, 똑같은 무한한 사랑이 성체성사 안에서 이 시간, 바로 이곳에 나타나며,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현재의 중심에 있는 성체성사는, 우리가 현재를 인식하고, 아가서에서 말하듯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분의 사랑하는 사람과 나 자신을 대조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강생과 십자가와 성체성사 안에서 세 가지 “도약”을 묵상한 교회의 한 교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들 안에서 모든 사람의 현재에 나타나시기로 선택하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복음사가 요한은 우리의 가난 속에서도 우리가 매일 성체성사를 맞이하도록 부름받았음을 무한한 사랑의 불꽃 네 개를 통해 전해 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은 공관복음과 달리 주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체성사 제정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스승과 주님이 배반당하시던 밤에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몸을 굽혀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요한의 글을 통해 역사의 중심에 영원히 각인된 이 몸짓은, 성체성사의 심오한 신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발 씻김은 주님께서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신 “설명”과 제안입니다.

a. 현재의 선물 - 오늘, 지금 여기 성체성사를 통해 주님께서서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체성사를 통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충고와 암시를 주는 현존이 아니라, 가장 심오하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즉 직접 현존하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실 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이 되게 하고 자신으로 현존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살레시안 아씨스텐자의 뿌리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으며, 성체성사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다른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 함께 머무는 것은, 모든 사랑의 기초이자 기본입니다. 성체성사를 통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과거나 미래에 머무시기로 결정하지 않으시고, 때는 너무나 가혹하고 메마르기만 한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십니다.

b. 희생 -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산만하고 무관심하고 호기심 많은 현존이 아닙니다. 성체성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현재를 보러 오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며, 내 삶의 건축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내 역사에 들어오신 것도 아님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서슴지 않으신, 그분의 사랑의 힘인 성체성사가, 우리들의 마음에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현존은 미지근하고 소심하고 무기력한 현존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분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체성사에서 우리의 현재는 모호한 약속이나 포괄적인 확신에 의해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이라는 하느님의 선물, 내 이야기의 끝까지 동반하시는 하느님에 의해 마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 자신을 희생할 것을 선택하셨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서 사람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c. 친교 - 너무 자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과 동행하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 각 사람의 개인적인 선택, 공동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친교를 이루며 형제자매로서 하느님의 한 백성으로 친교를 이루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체성사 안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며, 같은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친교를 이루며 걷는 사람들입니다. 성체성사는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나에게만, 나를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로도 사랑의 논리가 아니며, 하느님의 사랑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랑은 나누임이 없고 일치를 이루며, 재창조하고, 관계를 맺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느슨해지거나 중단된 관계를 다시 연결해 줍니다.

우리와 모두를 위해 주어진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은총을 받습니다. 성체를 모시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하며, 그분의 몸에 속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형제자매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같은 사랑의 선물을 받았습시다. 우리가 같은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사랑하며,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d. 증인 - 우리가 성체성사를 거행할 때마다 반복하듯이, 성체성사는 제자들과 교회의 “너희”를 위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모두를 위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 삶을 포함해서 새롭게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성체성사는, 나를 내 안에 가두지 않으며, 우리를 엘리트 그룹이나 독점하는 모임으로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를 교회로 만드는 성체성사는 하느님의 마음에서 고통치는 사랑의 같은 움직임, 누군가가 멀리 떨어져 있고 외로울 때, 멈추지 않고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누군가는 어린 시절 사랑받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성체성사는 우리를 가두지 않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공동체로서 우리를 세상에 파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본 것과 손으로 만진 것을 증언하게 하는 것이



성체성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의 증인이 되게 하고, 그분의 아들과 같은 친밀함과 확신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게 합니다. 성체성사는 우리가 형제애를 재건하는 증인이 되게 하며, 우리가 교회와 하나이기 때문에 형제로서 서로 환영하고 동반하는 관계를 이루게 합니다. 성체성사는 멀리 이들과 가까이 하고 싶은 성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우리의 손을 더럽히더라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보다, 작은 것이라도 봉사하며, 우리를 내어주는 삶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달콤하고 은은한 향기로 채우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돈 보스코께서는, 지금 나의 마음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인 성체성사를 예방교육체계의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둥 중 하나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돈 보스코에게 이것은 직접 경험한 심오한 확신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버림받고 안전하지 못한 발도코의 고아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고 누구의 것도 아닌데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체성사 안에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돈 보스코는 그의 생명의 마지막 한 숨까지 청소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살레시안 영성의 초석을 요약하는 이 두 기둥의 꿈에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심오한 확신입니다. 성체성사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지금 여기, 우리의 마음 안에 현존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닌 오늘, 지금, 여기에서 당신 자신을 현존하게 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안전 항구인 성체성사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셨고, 매일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당신 사랑의 기둥에 우리 배의 닻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것은 고립된 키잡이의 안내를 받는 많은 작은 배들이 착륙하거나 닻을 내리지 않는 기둥이지만, 베드로의 후계자의 안내를 받는 교회의 큰 배는 성체성사로 상륙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체성사에서 안전한 휴식을 찾는다는 것은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 예약된 호화로운 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 보스코의 다른 많은 꿈들에 등장하듯이, 그것은 뗏목, 구명정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희망과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 여전히 우리 바다에 상륙하고 우리 해안과 도시에서 환영해주시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삶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배에 탄 사람들이 가라앉고 익사할 위험에 처하게 되더라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호화로운 배는 성체성사의 기둥에 정박하지 않고, 사나운 폭풍으로 인해 침몰할 위험이 있는

뗏목만이, 마지막까지 위험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마침내 그를 환영하는 곳에 정박합니다.

돈 보스코는 이렇게 썼습니다.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 두 개의 견고한 기둥이 파도에서 솟아 오르고 매우 높으며 서로 멀지 않습니다. 하나 위에는 원죄없는 동정녀의 동상이 있으며 발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있는 큰 표시가 걸려 있습니다. ‘AUXILIUM CHRISTIANORUM’; 다른 쪽에는 훨씬 더 크고 두꺼운 HOST가 있으며 그 크기는 기둥에 비례하고 다른 표지판 아래에는 ‘SALUS CREDITIU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B VII)

개인 기도와 묵상을 위해서

1. 나의 일상에서 나는 나의 현재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는가?
2. 나는 나의 노력만으로 발전하고 발전하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나의 선택과 행동, 어려움과 기쁨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도록 매일 주님께 맡기는가?
3. 나는 성체를 무한한 사랑의 선물로 체험하며, 성체를 모실 때 마음이 설레고 떨리는가?
4. 성체성사는 나를 친교의 증인이 되게 하고, 내 일상을 “달콤하고 섬세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울 수 있게 해주는가?

이 달의 약속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맨 먼저 십자성호를 긋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청하겠습니다. 주 중에 성체를 모시며, 주님의 방문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깨워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도움”

“안전한 믿음”



믿고, 맡기고, 미소짓자

DON ANGEL FERNANDEZ ARTIME 총장 소령의 편지 천국으로 가는 길



“마리아는 우리의 어머니이며, 스승이시며, 우리를 성덕의 발걸음에서, ‘날아갈 수 있게’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돈 엔젤 페르난데즈)

마리아드 몽폴 성인은 “참된 신심에 대하여”에서 마리아의 특별한 중재는, 그녀의 자녀들에게 마리아를 닮게 하고, 마리아와 가장 깊은 친교를 나누게 한다고 기록합니다.

참된 신심을 살기 위해서는 세례성사를 통해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과 죄를 떨쳐버리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 안에서, 마리아를 사랑하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시는 성모님의 사랑에 머무릅시다.

총장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어머니이며, 스승이시며, 우리를 성덕의 발걸음에서, ‘날아갈 수 있게’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수도회 차원에서 볼 때,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단순한 부르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느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가치 있게 해주는 성모님과의 사랑의 나눔인 “참된 신심”을 살도록 요청받습니다.

ADMA 회원들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철저히 살면서, 그들이 활동하는 모든 환경에 이 은사를 가져가도록 초대되었습니다.

돈 보스코께서는 피에트로 브로카르도 신부가 회상하듯이, “하느님으로 충만한 성인 돈 보스코는, 또한 마리아로도 충만하셨습니다. 그의 전 생애는 성모님 곁에서, 하느님을 따르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돈 보스코의 경험에서 마리아께 대한 사랑과 성체성사에 대한 사랑은 항상 함께 하였으며, 교회의 삶과 사명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었습니다.

도움이신 마리아의 “신심”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친교가 자라나도록, 성체성사로 우리의 삶과 기쁨과 희생을 봉헌하도록 초대받습니다.

마리아는 지혜의 스승이시며 예언자로서, 일상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살아가는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이기도 합니다.

맘마 말가리타의 모습은 돈 보스코가 지닌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며,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은 자신의 삶으로 예언자가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동반하는 용감한 증거자이기도 해야 함을 기억시켜줍니다. 안젤 신부는 발도코 대성당에 있는 도움이신 마리아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마리아는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장엄한 모습으로, 하늘의 천사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한 손에는 왕홀을 들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함께 하시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의 빛으로 우리가 계속 타오르게 하십니다.

안드레아와 마리아 아델레 다미아니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서거 400주년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성체성사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의 생명인 성체성사의 값지고 마침 없는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교회는 오랜 전통 안에서, 성체성사는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맡겨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믿었습니다. 또한 성 프란치스코는 성체성사는 우리의 믿음과 봉사의 여정에서 원천이자 핵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그의 서거 400년을 지내면서 제네바의 거룩한 주교와 함께 성체성사 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의 중심에 오시며, 어떻게 성체성체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지를 인식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20대 초반의 파도바의 학생인 아직 어린 프란치스코가 쓴 글을 읽어 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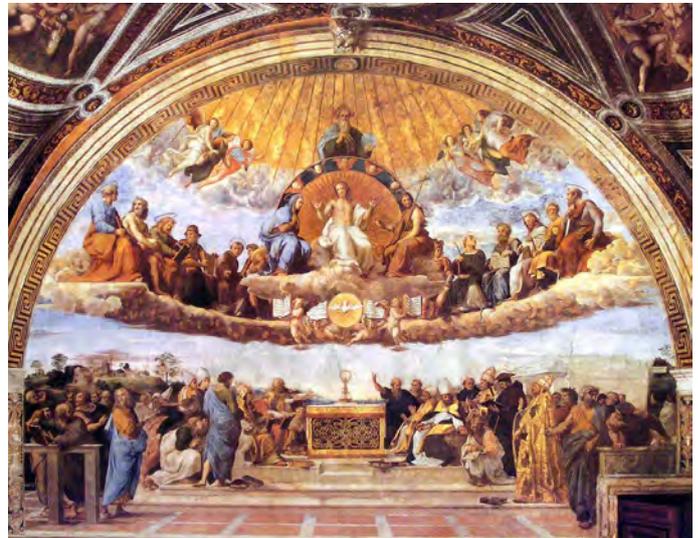
“나는 가능한 한 자주 영성체를 할 것입니다. [...] 적어도 이 빵을 먹지 않고 나의 영원한 안식의 근원을 받지 못한 채” (OA XXII, 43) 안식과 휴식의 날인, 일요일을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애덕의 박사인 성인의 글을 통해, 이 대림시기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다섯 가지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위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주님께서, 오늘도 성체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형제들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그분의 사랑을 주심을 기억합니다.

성체성사를 통하여:

a.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지금 여기로 만나러 오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

“모든 영적 수련의 태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희생이며, 희생 중 가장 큰 것은 희생의 성사인 미사입니다. 미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이고 신심과 경건한 행위의 핵심이며, 하느님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는 가장 심오한 신비입니다. 미사를 통해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누어 주시고 풍부한 은총을 쏟아 주십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면 크나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필로테아님, 미사를 통해 그대는 하느님의 은총을 넘치도록 받고 지극히 사랑하을 주님의 품속에 안기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영혼에서 나오는 감미로운 향기에 취하며, 마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몰약과 유향, 이국의 온갖 향료로 향기를 풍기는 것처럼 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매일 미사에 참례하여, 사제와 함께 그대와 온 성교회를 위해 구세주의 존귀하신 희생을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해야 합니다.

b.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살기 위하여:

“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체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을 우리 마음대로 소유하고, 다루며, 씹고, 삼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어머니 Angelica Arnauld에게 보낸 편지, 1619년 6월 25일)

c.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사랑 안에서 성장하도록:

“성체를 영하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그대를 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가장 소중한 사랑을 그대에게 주시니, 그대도 이 사랑을 의식하고 소중하게 받아 모셔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성사를 통해 스스로 당신을 낮추시어 우리의 음식이 되시고,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와 한마음이 되십니다. 세상사람들이 그대에게 자주 성체를 영하는 이유를 물으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자 함이라고 대답하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모든 완벽함의 원형이시며 근원이신 분께 가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비하고자, 강한 사람은 약해지지 않고자, 약한 사람은 강해지고자, 아픈 사람은 치유받고자, 건강한 사람은 아프지 않고자 성체를 영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대는 불완전하고 나약하고 병들어 있으므로 완전하시고 강하시며 치유자이신 주님을 자주 모셔야 한다고 말하십시오. 세상사에 배여 있는 사람도 여유가 있을 때마다 자주 체를 영해야 하며, 특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도움이 필요하고 많은 양분을 섭취해야 하므로 자주 성체를 모셔야 한다고 대답하십시오.” (필로테아 제2부, 21장)

d.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현존이 되기 위하여: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소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느냐? 육체적인 소화가 잘되는 사람은 음식을 자신의 모든 신체에 골고루 배급함으로 온 몸이 원기 왕성하게 된다. 나의 딸아 이처럼, 영적인 소화도 그들의 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영혼과 몸의 모든 곳으로 확산되어 소통함을 느낀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뇌, 심장, 가슴, 눈, 손, 혀, 이, 그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 깨끗하게 하고, 죽이며, 소생시킨다. 예수그리스도를 모신 이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격려하고, 눈과 말로 모든 것이 된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상탈 남작부인에게 보낸 편지, 1608년 1월 24일)

e. 일상의 평범하고 구체적인 활동 안에서:

“영성체를 한 날은 무슨 일을 하든 위험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날에는, 더 큰 위험이 따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날마다 미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의 손과 손을 깨끗이 하였습니다. 성바오로는 자기 스스로 일하여 양식을 얻었습니다. 성체를 영하기 위해서는, 죄와 자신을 위해 추구하는 만족과 쾌락을 피하여야 합니다.” (브롤라트 회장 부인에게 보낸 편지, 1606년 2월-3월)

우리의 짧은 여정을 마치며, 다시 한 번 거룩한 제네바 주교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하느님과 우리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던 그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대림시기를 통해서도, 이 아름다운 소망이 이루어지게 합시다.

“산토끼들은 희 눈 속에 있기 때문에 겨울 산속에서 더욱더 하얗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선하시며 가장 순수하고 거룩한 성체성사를 늘 흠송하며 그대 안에 모시면, 그대 또한 사랑스럽고 순수하며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필로테아 제2부, 21장)

받은 것에 감사하기 위하여

베아트리체, 우리의 작은 기적

발도코 아드마의 새로운 회원인 젊은 부부 엘리사와 알레산드로의 증언.

Alessandro: ADMA에서의 우리의 여정은 5년 전 Roby 신부가 결혼 첫 해인 가족들과 우리처럼 결혼할 준비가 된 약혼한 부부들을 위한 가족 회의의 첫 단계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Elisa: 나는 몇 년 동안 그 내용의 일부였던 나의 부모님의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ADMA를 알게 되었습니다.

A: 오히려 저에게는 새로운 차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살레시안 환경에서 성장할 기회가 있었고 이 제안에 흥미를 느꼈지만 말입니다.

E: ADMA의 월례 회의와 그 달의 24일 축하를 통해 함께하기로 한 결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웠지만 최종 결정은 아니었으며, 충실한 제안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A: 지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결혼 초 우리가 겪었던 첫번째 어려움을 성모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극복하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Alice 이후에 또 다른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과 함께, 우리는 그 아기가 매우 심각한 뇌 기형을 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싸였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정상적인” 삶. **초음파 결과를 설명하던 엘리사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첫 번째 느낌은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었고, 잠시 후, 제 아내의 성모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로, 그녀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녀를 돌볼 것이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이 어린 아기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설득력 있는 이 말은, 나에게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무엇보다도 성모님께서 내 옆에 계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이 절박한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E: 그때 우리를 두려움에 몰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였습니다. 나에게 나의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던 그 아기, 그리고 몇 달 동안 초음파 스캔으로 모습을 엿보던 아기입니다. 우리는 성모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청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평안을 느끼는 영혼으로, 기도의 감미로움을 맛보았습니다. 성모님을 통해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드마 가족들과의 새로운 우정이 탄생했고, 그들과는 성모님과 예수님께로 향한 믿음과 신뢰라는 공통 기반을 더 굳건히 했습니다.

A: 마치 기도와 성모님과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의사들에게는 거의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매번 검진을 받을 때마다 베아트리카의 뇌는 점점 더 정상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1년 전 4월에,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의 작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걱정했던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E: 그러나 우리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 즉 모든 임신 검진 중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심장 기형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종종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느님 섭리의 손에 맡겨진 신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아트리카가 수술로 중환자실에 머무는 동안 성모님께서 카펠리타를



“...그녀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통해 우리 집에 구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냈던 그 섬세함을 회상하면 감사와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며, 그분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성모님께서 일상의 크고 작은 선택으로 우리를 이끄는 데, 사려 깊으면서도 신중한 어머니임을 깨달았습니다.**

A: 지난 날들을 되돌아 보면, Roby 신부가 우리에게 결혼 생활에서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물었을 때, 우리는 성모님을 통한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발자국을 정확하게 확인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게 되며, 그저 감사하고 또 놀라기만 합니다. 그리고 ADMA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자신과 타인을 위해 진정으로 유익한 방식으로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직접 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 Don Bosco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의 안내자, 스승, 어머니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일을 절반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총으로 덮여 있으며, 다른 기적을 만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모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새롭게 맡겨 드릴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사진과 함께 짧은 간증을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오: adma@admadonbosco.org



가족의 연대기

아르헨티나 -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 하는 10월 피정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 10월 22일 토요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ADMA는, Néstor Zubeldia 신부의 지도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삶과 영성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피정은 성체조배, 묵주기도, 돈 비첸초 리케티의 주례의 미사로 이어졌습니다.

태국 - 도움이신 마리아 성모상의 가정 순례

수도회 창립 150주년을 맞이하여, 태국 살레시오 수녀회 관구에서 계획한 도움이신 마리아상 순례 계획이교육공동체 구성원과 학생들의 가정 방문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21일, ADMA의 영적 활성화자인Kuanruan Onakul 수녀는 ADMA 신심회원인 Vina Klaithong의 집으로 그의 생일을 맞이하여, 순례하는 성모 마리아 상을 모셔왔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위해 특별한 축복을 받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녀와 가족을 성모님께 맡겼습니다. 이후 ADMA 신심회원 및 이웃으로 도움이신 마리아 상의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10월 24일,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를 기념하는 날, ADMA 회원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일부 협력자들이 교사인 Kornuch Charoenphol의 집에 가서 함께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묵주기도를 마치기 전에 우리는 가족을 성모님께 맡기는 기도도 바쳤습니다. Kornuch Charoenphol 부인은 감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직접 만졌습니다.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 나는 그분들이 우리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움이신 마리아를 이 집에 모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와 사진 보내기

여러분이 수행하는 양성 모임, 도움이신 마리아 24일 기념, 봉사활동의 기사와 사진 제목과/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사(.doc 형식, 최대 1200자 공간 계산하지 않음)와 최대 2장의 사진을(jpg디지털 형식 및 너비 1000px 이상의 크기)

adma@admadonbosco.org 로 보냅니다. 이메일 “가족 연대기”의 제목과 텍스트에 저자의 자료를 표시하는 것 (이름, 성, 촬영 장소, 소속 Adma, 도시, 국가)은 필수적입니다.

보냄으로써, ADMA는 항상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사와 사진을 처리하고, 출판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미지는 편집진의 재량에 따라, <https://www.admadonbosco.org> 사이트 및/또는 다른 ADMA 출판물에 제목과 저자의 이름과 함께 발행될 수 있습니다.